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9년 08월 15일 발행(230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kabc.or.kr

03 ISSUE
대안협의 5개 안경사회를 표본 조사한 결과 안경원 폐업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04 NEWS IN NEWS
중국의 세계적인 온라인업체 알리바바가 자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기 위해 국내업체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04 NEWS IN NEWS II
오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인 안경원 폐수 관련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까지 유예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aoa

ALPA Arnold Palmer

www.aoa.co.kr
아오아상사 02 861 8686

DAGAS

응모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다가스 안경렌즈 무료 증정권을 드립니다.



다가스 차곡차곡 이벤트

· **행사기간 :** 2019년 7월 1일 다가스 프리폼 주문부터 9월 28일 주문일까지

· **당첨자 발표 :** 2019년 10월 17일 개별 당첨 안내

· **경품발송 :** 개별 연락 후 순차적으로 발송

· **응모방법 :** 렌즈에 동봉된 스티커를 스티커 포스터에 부착하여 경품 응모.
스티커를 모으시면 부착한 포스터 사진을 찍어서 대리점으로 보내주세요.
(원본 포스터는 일정과 관계없이 영업담당자가 방문하여 수거합니다.)

스티커 차곡 차곡 모으자!

>>> **5개시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 선착순 증정

>>> **10개시 :** 토스터기 응모가능 [필립스 데일리 컬렉션 토스터(HD2584)]

>>> **30개시 :** 에어프라이어 응모가능 [대웅모닝컴 에어프라이어(DWAF-0020WS)]

>>> **50개시 :** 삼성 공기청정기 응모가능 [삼성전자 공기청정기(AX34R3020WWD)]

>>> **55개시 :** LG TV 응모가능 [LG전자 43인치 TV(43LK561C)]

>>> **60개시 :** 위닉스 건조기 응모가능 [위닉스 8.0kg 건조기(HBBM80-HWK)]

>>> **65개시 :** LG 김치냉장고 응모가능 [LG전자 128L 김치냉장고(K138SS13E)]

>>> **70개시 :** 삼성 휴대폰 S10e 응모가능 [삼성 갤럭시 S10e(자급제 128GB)]

>>> **75개시 :** 삼성 노트북3 응모가능 [삼성 노트북3(NT341XAA-K101B)]



스타벅스(1,305명) 토스터기(4명) 에어프라이어(4명) 공기청정기(1명) TV(5명) 건조기(3명) 김치냉장고(2명) 휴대폰(2명) 노트북(2명)

- 본 경품행사에 응모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신동의와 제 3자 위탁동의를 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입니다.
- 행사 기간 내 해당 응모 수량에 맞게 부착하신 후 대리점에 2019년 10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추첨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 응모하신 안경원은 별도로 추첨을 통해 다가스 프리폼 안경렌즈 무료 증정권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렌즈 교환 증정권 : 1.60 이하 굴절 클리어 렌즈만 가능 / 변색, 편광은 무료에서 제외함)

※ 본 이벤트 관련 문의 사항은 가까운 대리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역대리점

서울 (주)일도옵티칼 02 448 7117 | 영신광학㈜ 02 853 8427 | (주)월드포커스 02 771 4282 | (주)일도광학 02 975 0633

경기 경기대명광학㈜ 031 391 5980 | 중부대명광학 031 283 1636 | 다가스광학(일산대명) 031 907 4265 | 대명렌즈광학(인천대명) 032 438 6800 | 경기일도광학 031 841 1416

경상 ㈜대명렌즈옵티칼(대구대명) 053 354 7779 | (주)동경옵티칼 051 894 3737 | 동협상사 051 412 2765 | (주)시원광학 051 758 2332 | 다가스동협(울산동협) 052 260 4593

충청 ㈜대명옵티칼(천안대명) 041 558 2202 | 대명렌즈(청주대명) 043 264 7887 | (주)한국렌즈(대전) 042 256 6256

전라 한국렌즈(전주한국) 063 236 0208 | 대명렌즈㈜(광주대명) 062 653 8998

강원 대명옵틱스(강원대리점) 033 735 1520

제주 동경제주지점 064 752 2648

대명광학(주) 충북 청주시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20, 043-240-4000

전국 **안경** / **콘택트** / **보청기** 전문체인 (주) 안경매니져

가/맹/문/의/환/영

4월 ~ 7월 오픈 · 예정 매장

안경매니져 **용인 구성점**
안경매니져 **신제주 노형점**
아이피아 **김포 풍무점**
아이피아 **파주 문산점**
아이피아 **광명역 롯데 아울렛점**
아이피아 **향남 홈플러스점**
아이피아 **춘천 홈플러스점**
아이피아 **여월 홈플러스점**
아이피아 **홈플러스 동대전점**
아이피아 **홈플러스 가양점**
씨채널 **진해 롯데마트점**
⋮

글라스 스토리 **부천역점**
글라스 스토리 **의정부 홈플러스점**
글라스 스토리 **인천 홈플러스 청라점**
글라스 스토리 **학동점**
글라스 스토리 **대전 유천점**
글라스 스토리 **대전 도안점**
글라스 스토리 **진해 석동점**
글라스 스토리 **양산 북정점**
글라스 스토리 **구미 형곡점**
글라스 스토리 **발산점**
글라스 스토리 **의정부 호원점**
⋮

1억 정부지원 창업 대출 자금 프로그램 연계 ※안경 및 콘택트 브랜드에 한함

가맹 안내 · 문의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GLASS STORY Lens Story 안경매니져 아이피아 Optical Manager 씨채널안경

총괄	서울	인천 · 강원도 · 경기도	대전 · 충청도	대구 · 부산 · 울산 · 경상도	광주 · 전라도
이 재 형 본부장	서 영 태 팀 장	강 수 용 팀 장	노 장 호 팀 장	이 동 기 팀 장	문 기 영 팀 장
010-9670-6666	010-9374-1739	010-9762-0608	010-9976-5058	010-2951-5485	010-7557-8208

보청기매니져 보청기 스토리 HEARING AID STORY
가맹 안내 · 문의 이 혜 정 팀장 010-3944-9436

렌즈매니져
가맹 안내 · 문의 박 진 우 팀장 010-6354-9455

NAVER YouTube Instagram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져**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9년 08월 15일 발행(230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Marvis
마비스렌즈 런칭 기념 콜라보
●전품목 일정 금액 구매시 무료설치
●아이원3D 누진측정기 630만원
아이미광학 T.02.774.4477 H.P.010-9662-6898

안경사 구인구직
모바일 APP 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뚝뚝 떨어지는 안경원 매출… 폐업 속출

부산 등 5개 안경사회 조사 결과 '안경원 폐업 증가' 한목소리… 안경 조제가공료 현실화 등 매출 키우는 대응책 마련 시급







▲ 최근 안경원의 폐업률이 전년대비 10~20% 상승한 것으로 확인돼 업계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폐업 세일을 진행 중인 안경원들의 모습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경원의 폐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로 안경 고객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전국에 과다 분포된 안경원들이 출혈 가격경쟁에 나서며 최악의 매출 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거래 안경원으로부터 매월 자동이체로 수금하는 한 회사는 지난 6월에 10여 곳이 한꺼번에 '폐업'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지난 30년간 안경업계에 종사하면서 요즘처럼 폐업이 많은 때는 난생 처음'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지방의 5개 안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안경원의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 인천시 • 부산시 • 울산시 • 전남 등 모두 5개 안경사회의 주요 임원은 지역마다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으며 폐업 안경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대다수 안경사들은 '올해는 매장의 월세 내기도 힘들다. 요즘은 고객을 한 명도 못 보는 날이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

톡톡톡

■ "이젠 정말 안경원의 성수기는 사라졌습니다. 2~3월에 조금 반짝하더니 완전 바닥입니다. 무슨 수라도 써야지…"
(서울 송파구의 한 안경원 원장)

■ "휴가철인데 선글라스 판매는 고사하고 맨날 피팅 요구하는 고객만 들어오네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천시의 한 안경사)

안경원 과다 개설 → 가격경쟁 극심

인천시안경사회의 이주신 회장은 "국내 경기가 침체하면서 안경원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 지역도 안경원 폐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전체의 불황이 가장 큰 이유지만, 일부 체인의 비상식적인 저가공세가 일반 로드숍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분회장은 "지금 안경원 상황은 최악"이라고 잘라 말하고 "올해만 우리 분회에서 안경원 7곳이 폐업하는, 그야말로 안경사 경력 20년 만에 이처럼 폐업이 많은 때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안경원의 폐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유통업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의 한 콘택트 제조업체 관계자는 "영업회의 때마다 매일 어느 어느 안경원이 폐업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안경원 폐업률이 전국적으로 20% 이상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반적으로 안경원의 폐업신고의 경우 각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는데 관련 자료의 획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사실은 본지의 반송 통수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평상시와 같으면 매월 5~6건이 '이사감'을 이유로 신문이 반송되는데 비해 최근에는 수개월째 매월 20건 이상이 폐업해 반송되고 있다.

울산시안경사회의 권순우 회장은 "우리 안경사회는 전년보다 약 20% 가량 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직접적인 원인은 H중공업과 S에너지 등이 위치한 국내 최대의 중화학공업지역인 울산이 조선 경기 침체로 지역 안경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안경사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진영일 회장은 "우리 지역의 지난해 대비 폐업률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매년 학생층 고객이 줄어들면서 안경원 경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진 회장은 "안경 조제수가의 인상, 검안료의 책정 등 돌파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폐업률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전남 지역이다. 전남안경사회의 이병규 회장은 "우리 지역은 대부분 1인이 운영해 시장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올해 전남에선 5~6곳의 안경원이 폐업했는데, 이들 폐업 안경원의 대부분은 무리한 확장으로 폐업한 대형 안경원"이라고 전했다.

시장변화에 적응하는 정책 개발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안경원의 매출 부진이 불경기 못지않게 내부의 문제를 장기간 방치한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내의 모든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유독 안경업계만 기존의 영업 방식을 고수해 시장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안경원의 부실을 재촉하는 3대 악재, 즉 ①안경원 과다 개설에 따른 출혈 가격경쟁 ②선글라스 고객 실종과 공테 고객의 증가 ③노안 및 라식수술 증가 등 외부 환경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서 매출 하락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안경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안경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 즉 안경의 조제료 현실화와 의료보험 포함 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안경사회의 전정현 홍보부회장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불황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매진해 안경사의 경쟁력을 높여서 고객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경가격을 올리는 것"이라며 "또한 공정거래 문제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안경 조제가공료를 현실화하려면 전국 각지의 분회가 지역에 알맞은 가격을 책정해 안경원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면 공정위 담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원의 매출을 늘리고 폐업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때이다./합동 취재반

안경렌즈 슬러지 개정안 일단 보류?

환경부, 대안협 의견 반영해 국무조정실에 유예 의견 전달… 내년 하반기 작용 예정

안경렌즈 폐수(슬러지)와 관련된 개정안이 유예될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지난 6월말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입법까지는 안경원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이에 환경부가 내부 검토 끝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부터 안경원의 슬러지를 폐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일정한 정화장치를 갖추도록 정한 개정안이 당분간 유예가 예상되는 것이다.



▲ 환경부가 안경원 폐수 관련 개정안을 유예하자는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고 이른 시일 내에 유예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화장실에 슬러지를 그대로 버리고 있는 한 안경원의 모습이다.

환경부 수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우리 부에서 '안경원에게 폐수정화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규제인 만큼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대안협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개정안을 유예하자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시했고, 이제 사전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의 유예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개정안의 입법이 10월 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음으로 관련 유예 안은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확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현재 슬러지 폐수정화시설을 갖춘 안경원은 전국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어떤 방식으로 정화해야 되는지 명확한 지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되는 것은 무리였다"며 "다행스럽게 환경부에서 대안협의 의견에 공감해 개정안이 유예되어 본격적인 시행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1577-8866

中 알리바바, 韓 콘택트업체에 '손짓'

알리바바 헬스, 서울서 국내 업체와 사업 설명회… 국내 업체들 입점 타진



▲ 지난 7월 28일 서울 논현동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개최된 알리바바 헬스(Alibaba Health)의 사업설명회 중 티몰 파마시의 장쩌 부문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는 알리바바社가 지난달 말 서울에서 국내 콘택트렌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8일 논현동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헬스케어 전문 플랫폼 알리바바 헬스(Alibaba Health)의 티몰 파마시 부문의 장쩌 부문장은 "중국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콘택트렌즈 상위 수입국 중 하나로 현재 오렌즈와 네오비젼, 사펜 등 총 3개 업체가 알리바바의 B2C 마켓 플레이스인 '티몰 파마시'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알리바바 헬스는 한국 사업자들에게 인사이트 및 노하우를 제공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중국시장에서 국산 콘택트렌즈의 점유율이 매년 상승하면서 현지 젊은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현재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1688.com이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자사 제품의 입점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 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는 50억 4000만 위안(약 865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2%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중국의 對한국 콘택트렌즈 수입액은 5075만 달러(약 601억원)로 2017년 대비 약 31.7%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14.9%에서 15.8%로 상승했다.

2020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신입생 모집(2년제)

■ 원서접수(수시)

구 분	수시모집(1차)	수시모집(2차)	정시모집
원서 접수	2019. 09. 06. (금)~09. 27. (금)	2019. 11. 06. (수)~2019. 11. 20. (수)	2019. 12. 30. (월)~2020. 01. 13. (월)
면접	2019. 10. 11. (금)	2019. 11. 22. (금)	2020. 01. 15. (수)
합격자 발표	2019. 10. 18. (금)	2019. 11. 27. (수)	2020. 01. 21. (화)
합격자 등록	2019. 12. 11. (수)~12. 13. (금)	2019. 12. 11.(수)~12. 13. (금)	2020. 02. 06.(목)~02. 10. (월)

■ 원서접수 방법 전화접수
- 전화접수 : TEL 063-530-9250~3, 063-530-9256 / 9237
- 우편접수: (56204)전북 정읍시 정읍사로 509 전북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 '원서재중' 명시

■ 장학혜택 및 기타
- 가족 장학금 외 다양한 장학금 혜택
- 현대식 기숙사 시설 및 타지역 학생 전원 기숙사 입사 가능
- 입학우수장학금 재학 중 등록금 전액 (고교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당해연도 고교졸업자)

■ 전형방법
-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 특별전형: 안경사 직계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정원외전형 :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농어촌학생지원자

■ 입학상담 : 안경광학과 063-530-9250~3 / 063-530-9256 / 063-530-9237
Mobile 010-2987-9075 / 010-8642-9460 / 010-3675-9251 010-3305-1763 / 010-2025-1314

■ 학과 특성
- 매년 높은 취업률
- 매년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
- 안경사국가시험 전국수석 배출 (2005, 2013, 2017, 2018년) (2017, 2018년 2년 연속 전국 수석~!)





안경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2005 · 2013 · 2017 · 2018년)

케미 안경 렌즈



MAGIC FORM XT

Premium Customizing Design

경험해보지 못한 누진 시야를 제공드립니다.



특별한 나만의
레이저 마킹 서비스



정말한 누진설계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완벽한 개인맞춤

www.chemilens.co.kr

다비치 여신들, 뮤직비디오서 비비엠 노출

다비치, 마마무와 광고 콘텐츠 전개… 광고 같은 뮤직비디오 세간에 화제

㈜다비치안경체인(대표 김인규)이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마마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비비엠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공식 뮤즈로 선정된 마마무와 함께 다비치안경은 음원 제작 및 뮤직비디오 작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달 24일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세련되게 풀어낸 신스팝 장르의 곡 '다 빛이나(Gleam)'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선 공개했다.

이어 8월부터는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이 전개 중으로 광고는 '다 빛이나' 뮤직비디오의 키비쥬얼로 활용된 쥬크박스에서 비비엠 안경이 나오는 장면과 마



마무 멤버들이 비비엠 안경을 착용한 내용들로 제작 됐다.

회사의 관계자는 "개성 넘치는 마마무 멤버들과 쥬크박스라는 독특한 소품에 트렌디한 비비엠 아이웨어가 동시에 노출돼 뉴트로한 감성의 색다른 매력을 전달하고 있다"며 "자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비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2)752-6177

가격·기능 앞선 첨단 3종 출시



프리미엄급 '휴렌 제니스' 등 런칭 오는 9월부터 1.55 굴절률은 단종



고급 프리미엄 안경렌즈를 모토로 프리폼 가공 렌즈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휴렌이 이번 달 고기능의 다양한 프리폼 렌즈 3종을 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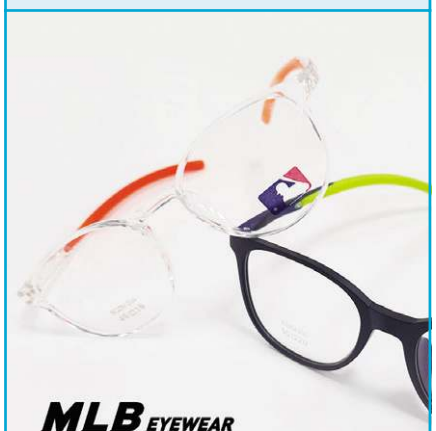
그 첫 번째 라인은 프리미엄 누진레즈 HUREN ZENITH로 양안시를 고려한 설계로 한국인의 안면각, 경사각, 정점간 거리는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PD값을 입력한 한국인 맞춤형 프리미엄 누진렌즈다.

이어 두 번째 렌즈는 휴렌 근적외선 차단 코팅렌즈(HIR; Huren Infrared-Cut Coating)로 자외선에 근적외선까지 차단해 눈가의 주름 및 피부 처짐 등의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세 번 째 라인은 합리적인 가격대이면서도 고기능을 자랑하는 CF PLUS 누진렌즈로, 내면 비구면의 편안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최고 사양의 누진렌즈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눈은 그 차이를 압니다'라는 휴렌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이번 신제품은 기존 렌즈와 다르게 차별화된 고급 렌즈"라며 "자사는 이번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이달부터 프리폼 1.57 굴절율의 가격을 인하하고, 1.55 굴절율은 오는 9월부터 단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02)752-4000

MLB, 뉴 라인 런칭



슈페리어옵틱스, 스포티 디자인 특색 젊은 세대들로부터 높은 인기 예감

(유)슈페리어옵틱스(대표 김대환)가 전개하는 MLB 아이웨어가 하반기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MLB의 WIZARD는 캐주얼한 디자인의 프레임에 얼굴을 편안하게 감싸는 곡선형 템플로 스포티함을 더해 일상생활과 레저 스포츠 시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신제품은 가벼운 TR소재로 착용감이 매우 편안하고, 올해 트렌드인 네온컬러를 활용한 컬러풀한 러버 소재의 팁으로 MLB만의 스포티한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슈페리어옵틱스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상은 MLB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걸맞게 트렌디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자랑하고 있다"며 "가성비도 너무 좋은 위자드 컬렉션은 10~20대 젊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최적의 컬렉션으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10-4349-2027

안경매니져, 대기업 KT와 손잡았다

수십만 KT 임직원과 가족에게 안경 구매와 이용 업무협약… 4백여 가맹점 혜택



▲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양사 관계자들(김재목 대표(좌측 두번째)와 KT의 권오상 상무이사(중앙)).

㈜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가 ㈜케이티(대표 황창규)와 지난 7월 KT광화문빌딩에서 안경상품 구매 및 이용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케이티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가족은 안경매니져의 가맹점에서 제품 구매 시 10%의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양사의 업무협약은 국내 최다 가맹 안경원을 보유한 안경매니져와 국내 최대 통신사로서 수많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케이티의 협약 체결인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매니져의 김철기 부장은 "케이티 그룹의 임직원은 전국적으로 5만여 명으로 가족과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수십 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여서 이번 협약으로 우리 400여 가맹체인은 든든한 예비고객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전국의 가맹점마다 이번 MOU의 효과를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042)523-7741

시슬리 베이직, 도시감각 뛰어난 신상 런칭

화경산업사, 메탈&아세테이트 조화로 젊은 감성 완벽 표현… 안경 기본에도 충실



㈜화경산업사(대표 이재화)의 SYSLEY BASIC이 오는 8월말 새로운 도수테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9년 F/W 시즌의 아이웨어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한 이번 신상은 메탈을 기본으로 아세테이트 소재를 추가했고, 오버사이즈의 라운드 림과 샤프한 아웃라인 등으로 전 연령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기대케 하고 있다. 화경산업사 디자인팀의 한 관계자는 "'안경의 기본에 충실한다'는 시슬리 베이직의 기본 아이덴티티에 걸맞게 소재와 제작 공정, 그리고 마무리 작업 등 모든 공정에 많은 정성을 들인 컬렉션이어서 회사 자체적으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자사는 이번 시리즈에 이어 조만간 F/W 시즌의 다양한 신상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문의 053)352-4584

블루라이트 차단은 기본,
유해한 블루라이트만 선별적으로
차단하세요!



PURE
BLUE UV

에실로 PURE BLUE UV란?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혁신적인 기술로 인체에 유해한 블루라이트만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소재 방식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술입니다. 일반 블루라이트 차단렌즈에 비해 렌즈가 노랗지 않아 깨끗한 시야와 우수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이제 바리락스, 니콘 누진렌즈에서 유해한 블루라이트만 차단하세요.

PURE BLUE UV만의 혁신적인 블루라이트 차단 기술



유해한 블루라이트만 차단

LIGHT PURIFIER 기술로 유해한
블루라이트만 선별적 차단



깨끗한 시야와 우수한 외관

노랗지 않은 안경렌즈
파란 반사광 없이 우수한 외관

25
E-SPF
EYE-SUN PROTECTION FACTOR

양면 자외선 차단

렌즈 전면 뿐 아니라 후면까지
양면 자외선 차단

※위 내용은 안경사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예시 문구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매니져

전국 대리점 모집

불경기라 어려우십니까?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의 필수 아이템 보청기!
(주)안경매니져에서 원장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왜, 보청기 매니져일까요?

- 최저 공급가⬇ 최대 마진률⬆
- 보청기 1:1 맞춤 교육 시스템
- 전문 청각사 상담 서비스 지원
- 보청기 연수 과정 지원
- 개별 맞춤 기획 디자인 서비스
- 온·오프라인 마케팅 서비스 제공

오픈/오픈예정점

안경매니져 당진점/ 안경매니져 광교점/ 안경매니져 난곡점/ 안경매니져 익산 부송점/ 수원 공장형/ 씨채널 평택점/ 안경매니져 부사점/ 안경매니져 우송대점/ 안경매니져 월평점/ 전주 세계점/ 안경매니져 아중점/ 안경매니져 동산점/ 군산 대야점/ 씨채널 연수점/ 씨채널 수유점/ 밝은안경 작전점/ 안경마을 박촌점/ 안경매니져 영광점/ 안경매니져 반석점/ 부평 인화점/ 안경매니져 전주 혁신점/ 안경매니져 구미 도량점/ 안경매니져 구미 옥계점/ 아이피아 온양점/ 안경매니져 천안 성환점/ 안경매니져 천안 직산점/ 목포점/ 수원 에이스점/ 안경매니져 정읍 CGV점/ 안경매니져 석교점/ 안경매니져 쌍문점 …

전국 안경 / 콘택트 / 보청기 전문체인 (주) 안경매니져

보청기매니져 × Beltone

가맹 상담 이혜정 팀장 010-3944-9436

부음

큰 별이 짐을 애석해 한다



안경사법 반대 전 국민 결의대회를 1989년 9월 28일 1만 2천여 명이 새마을88회관에서 개최해 시행하려는 안경사법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입법을 제정 • 성립시키는데 전국 안경사들이 기치를 높이 들고 똘똘 뭉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투쟁에 적극 나섰다.

대책위원장에는 김호곤 회장, 간사에 정순원(사진) 님이 전무를 담당하고 그날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전국 시도회를 누빈 끝에 목적한 바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법정단체인 대한안경사협회가 탄생했다. 여기에는 쉬운 일보다 부딪치고 껄끄러운 잡다한 일들이 더 많았고, 해소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

특히 정순원 간사는 주로 재정을 담당하며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지장도 주지 않고 전념하도록 반대되는 안과의 처방을 똑같이 하도록 힘썼다. 그리고 전 회원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 급기야 1990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때마다 경향각지를 돌며 강의 순회와 별도로 지방 유지를 모아 활동에 다리를 놓는 일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대책위에서 필요하다면 재빨리 전달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았고, 이듬해 1990년 9월 28일 가칭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의 법정단체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는 기초를 닦았다.

여러 사람의 대책위원들이 노고가 많았지만 특히 정순원 간사께서는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데 유달리 힘썼다. 그것은 정순원 님이 평소에 닦아 놓은 인품과 인격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아는 바이다. 지난 6일 구순을 한 해 남기고 작고하신 님께서는 그래도 평소 닦아 놓은 타고난 건강 체질 덕분에 병석을 오래 지키지 않았나 사료된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각지의 안경사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 한 끼를 대접한 일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아무리 건강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화타(華他), 편작(扁鵲)이라도 생노병사의 길을 빗겨 갈 수는 없는 법. 다른 세상에 가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 잊지 마시고 계속 화해를 위해 정진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으며 추도사에 가늠한다.

/우암 문윤서(본지 편집위원)

'안경업계 불황, 탈출구는 있는가?'

치킨게임화 되어가는 안경업계… 시장 변화 인정하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



▲ 지니스안경체인 대표 김진희

국내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안경업계의 불황이 넓고 깊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안경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희망을 찾아야할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안경원을 포함한 모든 안경 관련업체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영업 방식은 무의미한 텍스트에 불과하다. 소비자의 구매 환경과 안경원의 경영환경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많이 눈에 뜨이는 대형마트를 보면 현재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매장마다 거리 제한을 두어 경쟁력 있는 다양한 상품을 진열 판매해 고객을 유치해 나름대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 지금은 대형마트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의 이목을 단번에 끄는 킬링 아이템 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안경원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갖가지 프로모션을 기획 추진해도 효과가 없고 적자가 늘어나는, 생산성 없는 치킨게임화 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서 안경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이덴티티를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그만큼 각각의 가맹점이 힘을 모은 안경원 프랜차이즈는 고객들의 반응에 기반해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보다 먼저 불황을 경험하고 극복한 바 있는 일본 안경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안경사들은 우리 시장의 수많은 안경체인을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그들 역시 체인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안경사들은 알고 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안경업계의 진정한 불황 탈출을 위한 첫걸음은 시장 변화를 인정하는 의식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내 패션업계 거장 슈페리어그룹
아이웨어 시장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



SUP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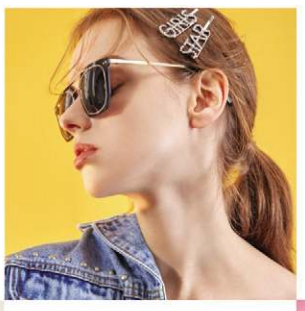
슈페리어그룹은 52년간의 국내외 신뢰와 패션 업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브랜드를 확보하였으며 플랫폼을 만들었다. 1967년 동원(動元)섬유로 창업하여 현재는 패션 브랜드 15여 개와 잡화·라이선스·금융··문화 예술 등 패션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대한민국 패션 기업 1세대로서 지난 52년 대한민국의 섬유 패션의 역사와 ㈜슈페리어를 바탕으로 아이웨어 산업에 접목하여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한다.슈페리어는 자체 브랜드 개발/생산은 물론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패션 선진국으로부터 디자인 및 상품을 소싱, 라이센스하여 최고의 디자인과 품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또한 연간 수백만 장 이상의 최고의 제품생산을 위해 국내 패션기업 중 유일하게 제품별 생산라인을 창사 초기부터 반세기간 국내에 자체계열공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개성,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의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1979년 대한민국 제1호 골프웨어 브랜드로 탄생된 "슈페리어"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인 김희선을 뮤즈로 내세운 브리티시라이프스타일골프웨어"임페리얼", 국내유명 90여개의 백화점 유통을 전개중인 이탈리안 라이프스타일 남성캐주얼 "프랑코페라로" 프랑스 대표디자이너 '마틴싯봉'의 본사인수 및 52개국 라이선스 전개권 획득하면서 다양한 라이선스사업을 진행, 마틴싯봉의 디자인감성을 바탕으로 이미 국내에서는 "론니슈즈(LONELYSHOES)"로 명성을 얻은 프렌치영컨템포러리 "블랙마틴싯봉"과 얼굴천재 "차은우"를 뮤즈로 활용한 프렌치스트릿브랜드"BMS FRANCE"까지 브랜딩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얼마전 장신 개그우먼 장도연과의브랜디드영상을 선보이면서 유튜브 조회수 30만이상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이룬 블랙마틴싯봉은 현재트렌드를 통한 다양한 테스트와 새로운 방식을 접목하면서 꾸준하게 패션성장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패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및 아시아에서 가장 빅브랜드로 성장한 MLB/MLBKIDS 의가능성을 보고 미국 MLB본사와 직접 라이선스를 체결. 새로운 디자인, 유통,마케팅을 통한 슈페리어 옵틱스만의 새로운 MLB/MLB KIDS를 전개하면서 국내 유명 백화점을 시작으로 면세점,안경원 유통을 전개하고 있다.전문 기업인 슈페리어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유통망 영업력을 통한 전국 유명백화점의 선글라스 영업 및 전국안경체인유통을 위함에 있어 옵틱컬사업부의 인력 세팅을 통한 옵틱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슈페리어 그룹사에서 보유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회사인 마틴싯봉파리를 비롯해 블랙마틴싯봉 선글라스, 안경라인의 런칭, PB브랜드로의 전개를 통하여 유명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선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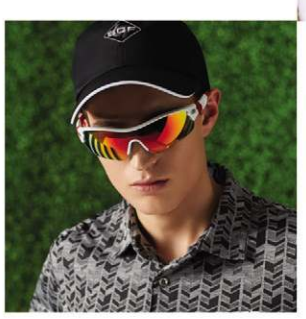
























SUPERIOR 슈페리어옵틱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페리어타워
www.superiori.com

슈페리어 옵틱스

로컬영업팀 이정근 02- 2192-3225
www.majorleagueeyewear.com

세계의 안경사③

한국과 비교 불가한 초보 중국 안경사제도

원칙적으로 검안사자격증 필요하지만 유명무실… 중국의 온라인 유통을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



▲ 중국 상하이의 한 안경원 전경.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경사제도가 필요한 나라이지만 아직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국.'

미국 검안의협회(American Optometric Association)의 사무엘 D.피어스 前회장은 중국의 안경사제도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가 없다고 혹평한 바 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빠른 고령화 등으로 올바른 눈 관리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지만, 중국의 안경사제도는 중국인민사회보장국(中國人民社會保局)에서 발급하는 검안사자격증명서가 거의 유일하고 이 역시 사실상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안경원, 즉 광학상점(光學商店)을 개설하려면 기본적으로 검안사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각지의 성(省)마다 관련 규정이 서로 달라서 이 같은 규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안경사, 즉 눈 전문가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자격에 대한 무시가 높아진다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2015년 검안사자격 이외 각 지방정부 별로 발급해 주던 자발적 허가가 중단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시장의 자율에 맡긴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안경원에서 눈 전문가의 비율은 놀랄 만큼 극소수인 것이 현실이다.

인구에 비해 눈 전문가 극소수

지난 2016년 상하이 눈안과학회(Shanghai Eye Ophthalmology Society)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경원의 실무자 중 검안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비율은 16%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중국 국무원 산하의 상무부 조사에서 베이징의 전체 도시 노동자 가운데 대학 학위를 소지한 비율이 32%로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경원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16%에 불과한 것은 중국 안경사가 전체적으로 수준 이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안경원의 학문적 성숙도가 이처럼 저조한 큰 이유는 교육시설이 극히 적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안경사가 될 수 있는 검안전문대학은 텐진의 텐진의과대학, 윈저우의 윈저우의과대학, 광저우의 중산대학 등 53개의 대학이 중국 북동부와 서부해안 쪽에 산재해 있다. 5,170만 인구의 대한민국에서 안경광학과가 44개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중국에서 53개 대학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수치로 중국에서 눈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처방전 없이 온라인서 안경 구입

중국광학협회(COOA)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의 안경원 수는 약 23,000곳 이상이며, 안경체인까지 더하면 그 수는 31,00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COOA의 관계자는 "중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현재의 안경원 수는 향후 2배 이상 더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안경원 증가를 위해선 안경사와 검안사 등 눈 전문가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한국 안경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시장 개방이 진행되면서 미국과 EU의 주요 안경체인이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해 현재 그들의 시장 장악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수와 대비해 안경원의 수를 계산하면 한국의 안경원은 1곳당 약 5,170명을 담당하는데, 이를 중국에 대입해 보면 한 안경원에서 45,160명을 담당한다는 계산이다. 즉 중국 안경원의 경우 안경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관련 제도의 미비로 안경시장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리바바에서는 도수 콘택트렌즈는 물론 누진다초점렌즈가 장착된 안경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 심지어 처방전을 제시할 필요도 없이 도수 등만 기입하면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

무법천지인 중국 사례 참조는 억지

2000년대 초반 중국 상하이에서 4년 넘게 안경사로 근무한 수도권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안경사와 관련한 제도가 극히 미비한 중국에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당장 가운을 입고 검안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엉망"이라며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온라인에선 안경류가 더욱 엉망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중국의 상황을 세계에게 가장 우월하고 잘 정비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



▲ 광저우의 한 안경원 내부 모습.



▲ 검안을 진행 중인 중국의 안경사.



▲ 중국의 안경원은 일반적으로 프레임, 렌즈, 케이스 등이 세트로 포함된 가격을 청구하고 있다.



▲ 중국 온주의 한 안경 공장.

률을 가진 한국에 적용해 우리나라에 안경류의 온라인 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정안의 재정에는 외국의 사례가 중요 참고 자료가 되는데,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된 개정에는 중국을 비롯해 제대로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안경사 관련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위해 외국 사례를 참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계속해서 그는 "중국 등 외국의 안경계 학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위한 개정안이 처리 중이란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에게 한국은 가장 완벽한 안경사 관련제도를 갖춘 나라인데, 자국에서 수시로 문제가 터져 나오는 온라인 유통을 법 조항에 추가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 중국 최대의 온라인 마켓인 알리바바에서 판매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 안경사 관련된 중국 내 가장 큰 단체인 중국광학협회의 홈페이지(http://www.chinaoptics.com/).)

tip. 중국의 안경사 관련제도

중국인민사회보장국의 안경사 등록 자격 요건

등급	조건
5급(초급)	만 18세 시험 응시 가능
4급(중급)	만 18세 시험 응시 가능
3급(고급)	4급 증서를 취득, 만 25세가 된 자
2급(기사)	3급 증서를 취득, 만 30세 혹은 만 35세인 자
1급(고급기사)	2급 증서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한 자

중국광학협회가 재정한 근무 규칙

제1조 광학상점(안경원) 근무자의 규칙 및 규정

1. 매장 내에선 잘 다려진 유니폼을 단정하게 착용할 것.
2. 점원들은 매장 안에서 웃고 떠들며 얘기하고 장난치거나 욕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상점에 있는 다른 동료나 고객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
4. 동료의 호칭을 아무렇게 부르지 않고, 직위에 맞게 이름을 불러야 한다.
5. 점원은 안경원 내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단결하며 상호 협력해야 한다.
6. 안경원에서 음식을 먹지 말고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7. 전화를 받을 때는 표준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8. 매장 내의 전화로 개인 용무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객을 응대할 시 전화가 오면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구한 후 전화를 받는다).
9. 카운터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고객을 상대할 시 서있어야 하며 고객이 앉기 전에는 앉지 않는다.
10. 안경원 입구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11. 항상 본인의 위생과 담당구역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2. 안경원의 운영 절차를 엄격히 따르며, 사용한 공구와 장비는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13. 안경원 내 상품의 가격과 각 활동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점 관리자에게 문의한다.
14. 점원은 지점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며, 관리자는 일 분배를 제 시간에 완료해야 한다. 점장과 언쟁이 생겨서는 안 되며 높은 수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5. 고객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16. 당일의 기록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기록하고 보존한다.

제2조 점장(관리자)의 의무

1. 매장 내 직원의 근무 및 휴식시간을 알맞게 배정하며 업무 평가 및 분배를 공평하게 처리한다.
2. 정기적으로 직원을 위한 다양한 전문 기술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매장의 다양한 비용을 관리하며, 재고 관리 및 재무 시스템에 대해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다.
4. 본사의 동의 없이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제조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선물을 받지 않는다.
5. 점원과 싸우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엄격히 금지한다.





▲ 안경원을 방문해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과 그가 밝은세상안경원에 남긴 친필 사인.

축구 명장이 선택한 누진렌즈… '클라비스 HD'

박항서 감독, 부산 밝은세상안경원 방문해 '데코 클라비스 HD' 선택… 불편함 없이 쾌적한 시야에 대만족

NIDEK LENS

베트남 축구의 영웅인 박항서 감독이 사용하는 누진렌즈는 ㈜데코비젼(대표 주해돈)의 개인맞춤형 누진렌즈 CLAVIS HD이다.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해 FIFA 랭킹 121위에 불과하던 팀을 단시간 내에 97위(2019년 7월)로 끌어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의 강국으로 만든 그가 지난달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한 안경원에서 클라비스 HD를 선택한 것.

지난달 5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김귀화 감독과의 오랜 친분으로 격려차 축구단을 방문한 박항서 감독은 오거돈 부산시장과의 오찬 이후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소재한 밝은세상안경원에서 누진렌즈 클라비스 HD를 맞춘 것이다.

밝은세상안경원의 서인식 원장은 "박항서 감독님에게 일상생활과 선수 지도 등 먼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보는데 최적 설계된 니덱의 클라비스HD 변색누진렌즈를 추천했다"고 전했다. 또 개인 맞춤형 클라비스 HD를 착용한 박항서 감독은 "새로운 누진안경을 착용했는데도 불편하거나 어지럼증이 없이 시야가 넓고 편안하게 잘 보인다"며 "안경원 관계자들과 니덱렌즈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니덱렌즈 신제품 '클라비스HD' 누진렌즈는?

데코비젼에서 지난달 선보인 니덱렌즈의 최고급 개인맞춤형 누진렌즈인 클라비스 HD의 HD는 '고화질, 고선명도'의 의미를 지닌 High-Definition의 약자로써 소비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선명도와 우수한 품질의 누진렌즈를 선보이고자 붙여진 이름이다.

스마트에디션 프로그램을 적용해 1mm 단위의 정밀한 누진대 설계로 원용, 중간, 근용 모든 시야에서 최대 시야감과 만족감을 극대화한 클라비스 HD는 특히 개인맞춤형 설계로 자사의 기존 누진렌즈들과 비교하여 하이밸런스 코팅을 기본으로 장착해 내구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니덱렌즈의 다양한 누진 라인업 중에도 최고급형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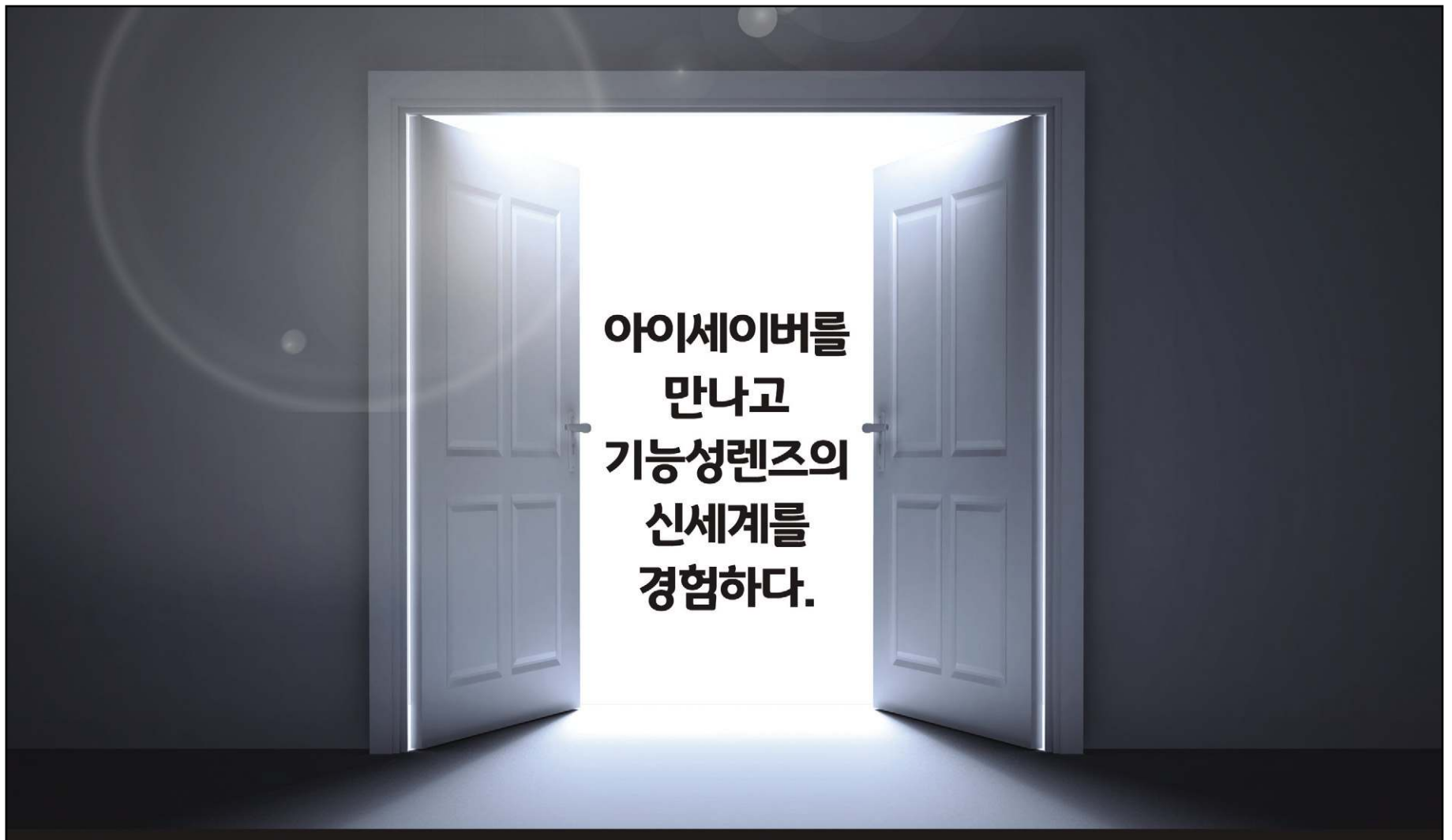
특히 클라비스 HD는 누진렌즈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근용부 시야를 옵티말 어디션 시스템 설계를 통해 기존 같은 누진대보다 한 단계 빨리 근용부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현재 데코비젼은 최고급 사양의 렌즈인 클라비스 HD의 출시를 기념해 모든 구매고객에게 나만의 누진렌즈임을 표시하는 이니셜 각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장마철에 필수품인 고급형 3단 양우산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335-7077



- 6가지 누진대
- 이니셜 각인서비스
- 수차 몰림부 제어
- Working distance (명시거리 선택)
- Automatically Inset (개선된 근거리 시력)
- 하이밸런스 코팅 (스크래치 방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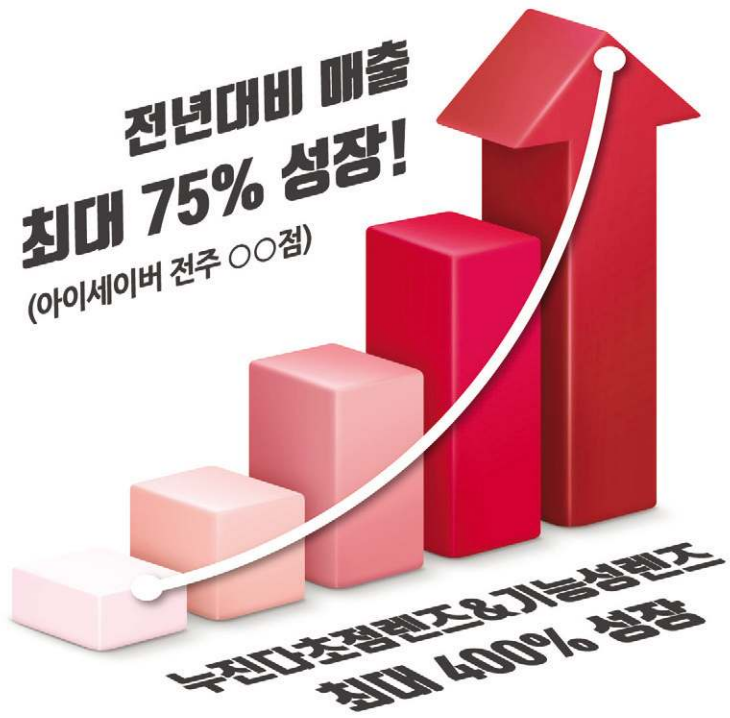


매출 하락 No! 매출 성장 Yes! 아이세이버를 선택 Good Job~!

Welcome to eyesaver

1:1 고객 맞춤형 컨설팅 = 1:1 고객 맞춤형 기능성렌즈

고객만족 UP!
매장성장 UP!
매출성장 UP!



영국식 검안법 시행

세이버키퍼 자체개발 프로그램 / 정기 가맹점 방문 컨설팅 / 옵톰아카데미(교육원) 운영 / 초기 오픈 비용 지원 / 광학장비 무이자 할부 / 다수 협력업체 및 PB 상품

검안전문안경체인
eyesaver
아이세이버 안경

www.eyesaver.co.kr
blog.naver.com/eyesaver_opt
eyesaver_official EYESAVER.Official

가/맹/문/의
010-6355-3143

LENS

CIOF 사로잡을 비밀무기 '빵빵'

하이비젼, 광학전서 근적외선 'G Sunfresco' 등 신상 2종 적극 홍보

㈜하이비젼코리아(대표 황봉옥)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32회 중국 베이징국제광학전(CIOF)에 참가한다. 하이비젼은 이번 CIOF에서 지속적인 글로벌 마케팅과 신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근적외선 차단렌즈와 1.70 양비 청광차단렌즈 등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하이비젼 마케팅부서의 한 관계자는 "자사는 이번 CIOF에서 드라이브 렌즈의 성공적인 런칭과 함께 자사의 핵심 아이템인 G 시리즈의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광학전에서는 근적외선 차단렌즈인 'G Sunfresco'와 1.70 양비 청광차단렌즈인 'G70 Allround'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사의 이번 신상 시리즈는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보다 기능과 성능과 뛰어나다"며 "CIOF에서 소개되는 두 가지 시리즈는 베이징광학전 이후 중국 내수시장에 적극 판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1833-3536



▲ 다음달 베이징국제광학전에서 선보일 하이비젼코리아의 부스 시안.

LENS

호야, HLE 어드밴스 과정 성료

7월 2차 교육 대전과 광주서 교육… 8월엔 인텐시브 과정 진행

한국호야렌즈㈜(대표 이선배)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인 호야 HLE(Hoya Lens Expert) 어드밴스 과정이 지난달 17일 대전보건대 안경광학과 강의실과 18일 광주의 KDB생명빌딩 소상공인센터에서 총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 지난달 17일 대전보건대 안경광학과 강의실에서 개최된 호야 HLE(Hoya Lens Expert) 어드밴스 교육의 모습.

이번 호야 HLE 정기 교육은 기존의 정기교육을 업그레이드한 과정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안경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은 7월에 새롭게 출시된 누진렌즈 Amplitude Plus(APP)에 대한 소개와 자동차 내부에서도 변색이 가능한 신제품 센서티 다크, 또 라이트 미러코팅과 변색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센서티 샤인이 소개되어 참석 안경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호야의 프리미엄 VG 코팅 프로모션 안내에 이어 누진렌즈 선택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기능성 중근용의 상담기법 등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교육되어 참석 안경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호야 교육팀의 관계자는 "호야의 2019 HLE 어드벤스 과정은 7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고, 8월부터는 인텐시브 과정이 진행된다"며 "호야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 및 참가 신청은 각 담당자 또는 본사 교육팀으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전했다. 문의 1588-5911

LENS

'놀라운 두께를 체험하세요'

한국세이코옵티칼, 두께 비교판 제작…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비교판 지원

한국세이코옵티칼의 SEIKO 렌즈가 타사 대비 얇은 렌즈의 두께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세이코가 안경원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인기제품인 양면비구면과 단면비구면 등 실제 렌즈의 두께를 눈으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전 굴절률이 포함된 두께 비교판(SEIKO RCT: Real Comparison of Thickness)을 개발해 선보인 것.

세이코의 한 관계자는 "도수는 S-1.00부터 S-10.00까지 1.00D 단위로 구성되었으며, 굴절률은 1.60 / 1.67 / 1.74의 단면비구면과 양면비구면 실제 렌즈 등 60개로 구성돼 있다"며 "가로 90cm, 세로 34cm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세이코 두께 비교판(RCT)에 관심이 있는 안경사들은 세이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지원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1964년 풀 스케일의 Rx 렌즈 공장을 설립해 1989년 세계 최초의 마이너스 도수 비구면 렌즈를 개발한 세이코는 같은 해 세계 최초로 광학 성능은 물론 얇은 두께로 비교할 수 없는 양면비구면 단초점 렌즈를 출시했다.

문의 02)362-8226



FRANCHISE

렌즈미, 2019 브랜드 대상 수상

처음 시행한 콘택트 전문점 부문서 영예 차지… 소비자가 직접 선정해 가치성↑

㈜렌즈미(대표 송민섭)가 지난달 24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콘택트렌즈 전문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렌즈미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콘택트전문점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것.



▲ 지난달 2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렌즈미의 송민섭 대표(사진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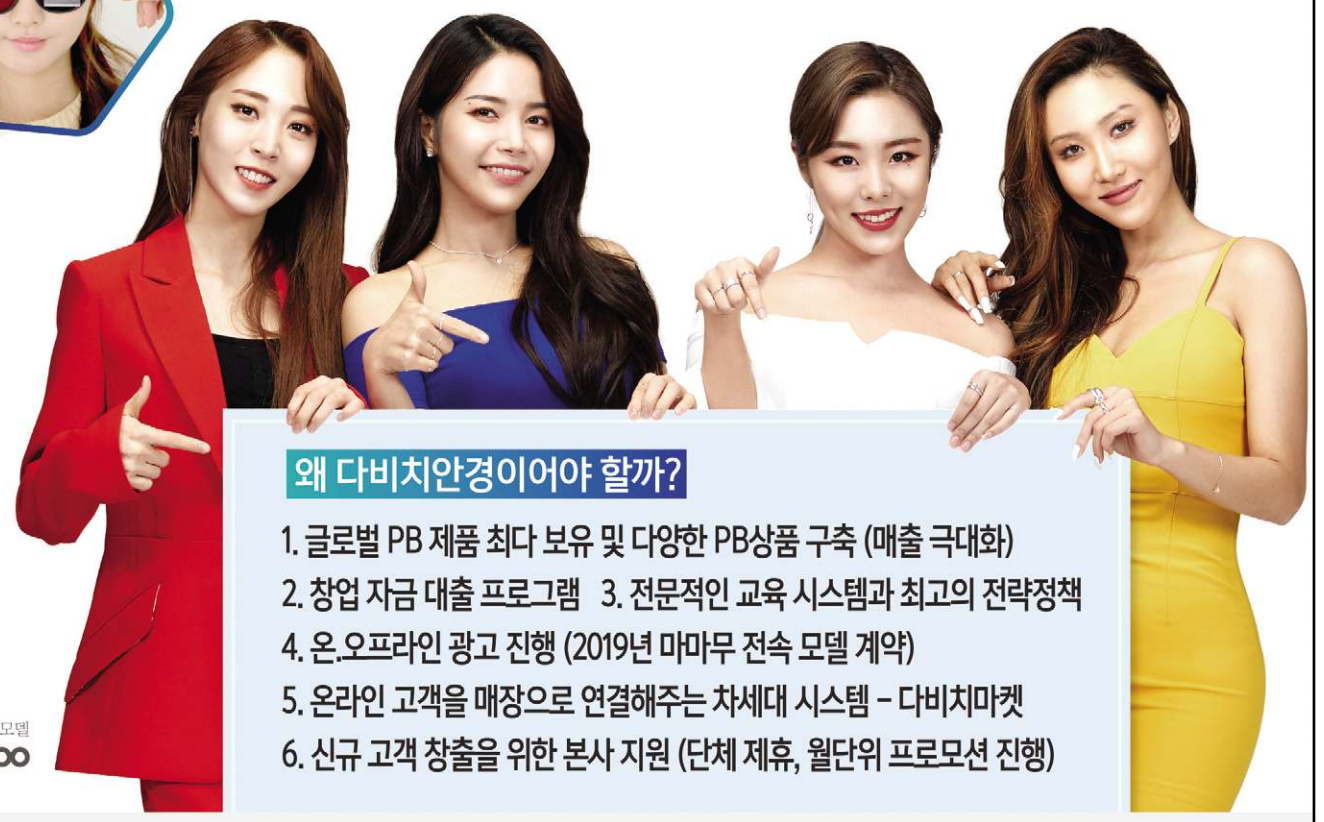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해 매년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이 행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와 일대일 전화 설문 등에 의해 소비자가 가장 많이 지목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높은 주목을 받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렌즈미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창업경영신문」이 선정한 안경 프랜차이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자사가 연이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까지 수상하면서 국내 대표 안경 프랜차이즈로 인정을 받아 기쁘다"며 "이 모든 성과는 그간 렌즈미를 아끼고 성원해준 안경사와 소비자들의 성원 때문임을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다. 문의 1577-2160







온오프라인을 전문성으로 연결하는

다비치만의 성공전략

가격 저가 경쟁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문성 있는 고객 신뢰시스템은
오직 다비치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다비치안경이어야 할까?

1. 글로벌 PB 제품 최다 보유 및 다양한 PB상품 구축 (매출 극대화)
2. 창업 자금 대출 프로그램 3.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과 최고의 전략정책
4. 온.오프라인 광고 진행 (2019년 마마무 전속 모델 계약)
5. 온라인 고객을 매장으로 연결해주는 차세대 시스템 – 다비치마켓
6.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본사 지원 (단체 제휴, 월단위 프로모션 진행)

다비치안경 전속모델
MAMAMOO

20년간 지켜온 1등 브랜드의 자부심!

오픈 예정 지역

다비치안경 릴레이 오픈 중

1월 - 기장시장점
3월 - 망우사거리점
5월 - 목원대앞점
7월 - 청주용암점
8월 - 분당 서현점(예정)
남양주 다산점(예정)

서울
강동구 : 고덕역 / 상일동 / 둔촌동역 / 강동구청역
강남구 : 압구정 / 강남구청역 / 강남역 / 수서역 / 논현동
강서구 : 가양역 / 화곡역 / 까치산역 / 방화동 **금천구** : 가산디지털
관악구 : 서울대입구역 / 낙성대역 / 난곡사거리
광진구 : 건대입구역 / 자양사거리 / 군자역 / 아차산
구로구 : 구로역 / 대림역 / 개봉동 / 오류동 / 신도림 /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 : 수락산역 / 상계역 / 마들역 / 중계학원가 / 공릉역
동대문구 : 회기역 / 청량리역 / 전농동사거리
동작구 : 신대방동 / 상도 / 흑석역 / 남성역 / 노량진 / 장승배기
마포구 : 공덕역 / 광흥창 / 신촌역
합정역 / 망원동 /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 홍제역 / 가좌동 **성동구** : 왕십리역 / 금호동 / 성수동
서초구 : 고속터미널 / 반포동 / 교대 / 남부터미널 / 양재
성북구 : 석계역 / 석관동 / 종암동 / 성신여대입구 / 한성대입구 / 안암
송파구 : 방이동 / 거여역 / 개롱역
영등포구 : 당산역 / 영등포구청 / 문래 / 대림동
은평구 : 은평뉴타운 **종로구** : 종각 / 종로3가 / 창신동 / 경복궁역
중구 : 신당역 / 약수
중랑구 : 신내동 / 사가정역 / 동부시장

인천 송도신도시 / 동춘동 / 신현동 / 석남동 서구청 / 서창지구 / 영종도 / 제물포

대전 월평동 / 도마동 / 노은역

충남 금산 / 배방

광주 금호지구 / 상무지구 진월동 / 봉선동 / 일곡지구

전남 광양 / 여수 여천동 목포 남악신도시

제주 아라동

경기
광명 : 광명사거리 / 철산역·소하동
부천 : 원종동 / 소사본동 / 송내역
성남 : 모란 / 미금역 / 정자역 / 오리역
수원 : 정자동 **시흥** : 은계지구 / 장현지구
안산 : 선부동 / 고잔동 **의정부** : 금오동 / 화룡역
안양 : 안양점 / 평촌 / 범계 / 인덕원 / 학원가
용인 : 성복동 / 상현동 / 보정동 / 구성마북지구
기흥구청 / 동백지구 / 역북지구 / 처인구중앙로
파주 : 금촌동 / 금릉역 / 운정지구 / 문산읍
하남 : 풍산 / 미사지구
고양 : 일산동 / 주엽역 / 마두역 / 탄현 / 풍동지구 / 삼송지구
김포 : 사우동 / 풍무지구 **과천** : 과천시청역세권
남양주 : 별내신도시 / 도농역 / 갈매지구
동두천 : 지행역상업지 **양주** : 회천지구 / 옥정지구
양평 : 시장~터미널 **의왕** : 의왕역 / 경수대로변
화성 : 봉담지구 **안성** : 공도

강원 원주 / 홍천 / 태백

충북 충주 / 청주 / 옥천 / 영동

경북 구미 옥계동 / 영주 / 상주 / 문경

대구 칠곡삼지구 / 지산동 / 다사읍 동호지구 / 화원삼거리

울산 화봉동

경남 진주 평거동 창원 대방동 / 고성

부산 서면 / 부전동 / 연산동 명지국제신도시

" 해당지역 안경사님께 오픈 우선권을 드립니다! "

가맹상담문의 **010-4087-0250**
이메일 문의 가능
jinkjin10@davich.com

다비치안경체인
Davich Optical Chain

Eye & Health Care
NIDEK

최상의 검안 서비스를 위한 NIDEK 검안 시스템



검안세트1

- 일반 LCD와 다른 고화질 광학전용 LCD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색감으로 적/녹 검사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 같은 VA에서 시표의 글자를 랜덤하게 변환하여 암기에 의한 검안 오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 양안시, 대비감도, 야간시력, 프리즘, 입체시 검사 등 다양한 시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제품구성** : 자동포롭터 RT-5100, 검안기 ARK-1 또는 ARK-1a 유니트 OS-5010, LCD차트 SC-1600P 또는 LC-190P.



검안세트2

- 1.1m 설치공간에서 5m 시표의 효과, 포롭터의 위치에 따라 시표가 높이가 자동 조절되는 공간절약형 미러 차트입니다.
- 저반사 특수 코팅 패럴을 사용하여 외부 조명에 의한 시표의 밝기/ 농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검안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 SSC-370의 나이트 모드는 밤과 같이 낮은 조도의 상황을 제공하여 야간시력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품구성**: 자동포롭터 RT-5100, 검안기 ARK-1 또는 ARK-1a 유니트 COS-2000, 미러 차트 SSC-370



콤팩트 검안시스템 TS-310

- 1㎡ 최소 공간의 검안시스템
- 하나의 LCD로 원/근용 동시 검사
- 126종류의 다양한 시표 내장
- 주/야간, 대비감도, 프리즘 시표 내장
- 매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자동포롭터 RT-5100

- 조용하고 신속한 렌즈 디스크 응답성
- NPC, NPA, NRA, PRA 검사 기능
- 핀홀 현상을 최소화한 슬림한 디자인
- 8.4인치 터치 틸팅 LCD로 사용이 편리
- 이마감지 센서, 단안PD, 근용LED 램프



수차분석기 OPD Scan III

- 시력의 질을 좌우하는 고위 수차 분석
- 각막곡률, 굴절력 분포도 측정
- 백내장, 주/야간 동공 크기 및 거리 측정
- 교정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화면
-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와 연동

미양광학(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가길 30(우 04527)
T. 02-779-7400~2, 02-752-8721 **F.** 02-777-4730

영업이사 김창해 010-4491-4009
기술부장 정민우 010-2465-6621